**장애물들 헐기**

**모든 사람은 속했습니다 • 모든 사람은 봉사합니다**

**2014 가을 (공공 옹호)**

**희망과 새 꿈들의 소리들**

**by 쥬디 토마스**

갈보리 개혁 교회, 홀랜드 미시간

난 존 데빗이란 이름을 가진 순 백인 아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에 그는 점점 더 정신분열증의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약들도 그 소리들을 완화하게 못해 그를 낮이나 밤에도 고통스럽게 하였다. 나의 아름다운 아들의 무너진 뇌는 그를 희망이나 평화없이 만들어 버렸다.

정신병의 어려움들을 통한 고통의 날들 후에, 그는 24세의 나이로 생명을 다했다.

정신병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나의 여정은 나의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존 데빗의 삶, 죽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어머니들의 꿈을 주었다. 정신병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들의 하나는 저렴하고 적절한 거처의 부족이다. 존이 죽기 일년 전에 미시간 홀랜드서 레덜 홈스를 찿았다. 우리 첫 집은 여덟개의 개인 방과 남자들이 함께쓰는 거실이 있었다. 우린 그 전에 미혼모들과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두개의 네개 방이 있는 아파트를 가졌었다. 저렴한 집과 함께, 우린 입주자들에게 개인 도움과 옹호를 제공하였다.

존 데빗의 드럼들은 (그는 열렬한 타악기 연주자였다) 조용히 죽어가는 고통의 소리들이었다. 그러나 레덜 거주자들은 확실한 희망의 소리들과 새로운 꿈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 “레덜은 아주 편안합니다. 우린 집에서 뛰고 하고픈 것을 하며 일들도 합니다. 우린 우리의 가족과 돕는 그룹을 만들어 서로를 진실하게 돌봐줍니다.”

• “난 레덜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이곳은 나의 집이다.”

• “내가 레덜을 좋아하는 것은 내 개인 레덜 매너저를 만나는 것이다. 레덜은 질적의 삶을 갖는 곳이다. 난 레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장점들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23년 후에, 레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신병과 함께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난 그들과 나의 귀한 아들의 기억과 함께 지내고있다.

레덜 홈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그의 드럼들은 조용하다, 그러나 소리들은 지금도 말한다, 존 데빗과 레덜 홈스와의 나의 여정은 [www.ladderhomes.org](http://www.ladderhomes.org) 에서 찾을수 있다.

**주제들**

**2014 가을—공공 옹호.** 이번 호는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벽들을 넘어서 옹호함을 설명합니다.

**2015 겨울—외상성 뇌 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만약 여러분이나 혹 가족중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는 도울 수 있는지요?

**11월 15일까지**, 여러분의 경험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

**‘아이의 영혼’을 돕기**

**by 제인 브라운**

멀디스 길 개혁 교회, 데스 모이네스 아이오아

80년 이상 동안, 아이노아주 죤스톤에 있는 어린이*봉사* (Child*Serve*, CS)기관은 아이오아에서 특별한 건강돌봄의 필요을 하며 사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며 옹호에 헌신하고 있다. 수년 동안 어린이*봉사* ([www.childserve.org](http://www.childserve.org))는 공동체의 변화하는 필요들에 맞춰 봉사들을 해오는데, 어릴적 병들로 집에서 사는 적은 수로부터 기관으로 여러 거처나 공동체 봉사들을 일년에 2,500명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건물들을 돌아보며는 그곳의 핵심들을 볼것이다: “어린아이의 영혼을 믿으라!”

“어린이가 어린이*봉사*나 혹 가족과 집에서 살든지, 어린이 봉사기관은 그들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제공하며 위대한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특별 건강 돌봄을 가족과 협력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명을 새롭게 좋게 이룰 수 있도록 복돋아 줍니다,” 라고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 개혁교회에 뿌리를 둔 로이드 밴덜 과악 회장은 말합니다.

근래 은퇴해서 병목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목사님이 자기의 일은 아이들, 가족들과 직원들과 함께 들어주고, 기도하며 옆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동하는 일들을 살펴보며는:

• 사랑으로 돌보는 직원에 안긴 5달 아이에게 세례주기

• “잘됨” 한 청소년과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 새 삶의 방식을 훈련함을 돕는 직원과 함께하기;

•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못해 축구를 못하는 12살난 여자아이를 방문해 도시와 주를 존경하며 축구팀을 함께 구경하기;

• 수천가지 방법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돠 교류하며 변호하는 직원을 단순히 바라보기.

“나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살며, 일하며, 섬기라고 창조하였다고 강하고 믿습니다,” 라고 미주개혁교회의 복음증거 목사를 받은 스티브 발걸 직원음 말하면서, “우린 이 일을 함께하며 우리 각자는 특별한 은사들, 재능들과 기술들을 각 상황에 함께합니다. 나는 어린이 봉사에 헌신했는데 왜냐면 협력의 사명으로, 전통적으로 사회와 건강돌봄의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길 수 있게하며 가족들을 특별하게 도울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곳이 산들이 아니다**

**by 제나 키호프**

중앙 웨슬리 교회, 홀랜드 미시간

내 공동체의 두 여인은 오직 신체 장애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제공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미시간 홀랜드의 니어커크 교회 성도 사라 웥터스는 수년간 독립적으로 지체 장애로 사는 사람들 과 일해왔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이 지금 자유롭게 독립해 사는것처럼 다른사람들을 돕는것이다.

사라(전기 휄체어를 사용함)와 웬 루비오(독신 부모)는 개인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독신 부모 가정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건물을 꿈꾸고있다. 왜냐면 독신 부모 역시 적당하고 편안한 집을 찾는데 고생하며, 독신부모도 장애로 사는 거주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사는데 도움을 줄 수있기 때문이다. 이 도움은 함께살지 않는 도우미들을 고용과 함께 이런 집 공동체의 모두에게 유익이된다.

집 사역들에 더 알기 원하면 (“집 기회들은 더 이상 어디든 산이 아니다”), 사라(sara\_walters10@hotmail.com) 혹 웬(rubiogwen@yahoo.com)에게 연락하세요.

**전기 의자와 함께 얻기Getting out with a Power Chair**

**by 이반 물덜**

북미주 개혁교회 지역 변호인, 펠라 아이오와

큰 도시 공항의 여자 화장실 밖에서 발생한 대화의 일들:

“여보세요 남자분,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혼자 움직일수가 없어요”

“나는 경비원을 부를거야요!”

“그렇게 하세요. 난 그녀에게 갈거야요. 그녀는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 화징실에 들어가는 것이 나도 좋지 않지만, 가족 화징실이 없으면 난 다른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게 아니라 할 수있도록 행동이나 환경을 바꾸도록 교육할 수 있다. 53년에서 40년동안 장애의 도전들로 우린 결혼하며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옹호하며 준비해 왔다. 우린 지역이나 그 넘어서도; 개인이나 공적으로도; 만나든지 편지로든지 아니면 방송이든지 옹호해 왔다.

제한은 활동들이나, 물건들이나, 봉사들이나, 혹 환경이 접근하지 못하는 대신 접근할 수 있으면 장애가 됩니다.

물론, 이런 증진을 이루긴 위해선 재정적 자원들이나 시간이 걸리며, 특별한 장비들이 준비돼지 않으면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중 시설들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래 여배때, 초대 목사님이 기도하시길: “주님, 건강하기에 아픈자들을 이해하지 못함을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장애물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일부러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앞선 생각이 쉽게 돈들지 않게 혹 장애도 없이 다른사람들도 똑같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전도 도구같은 청각 루프**

**by 라우라 쿠퍼**

달말 개혁교회, 달말 뉴욕

지난 4월의 청각 루프 3개 도입은, 뉴욕 델말에 있는 델말 개혁교회 는 청각을 잃은 사람들과 모두가 배우며 영적 선교를 계속하는데 옹호를 하고 있다.

청각을 잃은 예배자들과 공동체 그룹 회원들도 이젠 정기적으로 교회 시설들을 사용해 개인 청각 보조들을 통해서 소리를 사용하게 돼어, 헤드세트나, 보청기 필요없이 혹 증폭의 다른자원들 – 교회당, 교육관과 성가대실에 청각 시설에 감사한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지역 노인들은 적은 비용으로 대학 수준의 학업을 평생 인간 교육원(the Humanities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HILL)에서 합니다. 우정 가수들이나 그 방청자들은 시설 연주회를 좋아합니다. 뜨개질 함께 배우는 회원들도(Quilters United In Learning Together, QUILT) 이 새로운 정각 기구와 함께 기뻐하며 사용합니다.

듣는 시설 시작 전에는, 데빗 콜렛목사도 말하기를 교회 성도들이 예배때 듣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미국 청각 시설회의 쥴리에트 스털켄스 보고후에 교회 시설이 아주 향상되었다.

교회 기술적으로 숙련된 성도들의 도움으로, 청력 루프의 무제한 회사 돈 베틸도 지난 두주간에 3개를 장치했다.

**일터에선 않보이기**

**by 행크 큰츠**

북미주 개혁교회 지역 변로인, 토론토 노회

장애를 갖고 사는 수천의 카나다 일할수 있는 나이의 남.녀는 일을 갖기를 원했다. 많은 경우엔 포기하곤 한다. 약 인구 17퍼센트가 약간의 장애를 갖고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반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당신의 일터에선 장애가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이고 있나요?

다른 그룹들이 직면 한 차별은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룹들의 차별은 장애들과는 상관이 없다. 정의를 하자면, 장애를 갖고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들의 장애물을 당면하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의 것들을 갖고있지 않기에, 우린 그들의 능력들과 기부들을 일터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길을 활용하도록 찾는게 필요합니다.

많은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현장속에선 우린 장애를 갖고사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못하고 있다. 좋은 목적만으론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들에 안전하거나 권장시킬 수 없습니다. 일만 제공한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다. 우린 월급으로나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싼 노동”으로 보는건 만으로 차별할 수 없다.

우리의 일터 현장이 변화를 만들수 있는 출발점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적으로나 정부적으로도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두고 임금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 잠시 여러분도 아는 분들 중에 장애로 보이든 보이지 않던 간에 일을 할수 있는지 보세요. 만약 있다만, 그것을 당신 친구들이나, 사장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함께 하세요. 조합이나 조직적인 모임들을 마련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길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유익을 갖거나 혹 우리 생각에 그들을 돕는게 “불가능하거나” 혹 “너무 비싸다고”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카나다 기독 노동 조합의 잡지, *지침서*, 2000 1/2월의 발췌및 요약 허가)

**편집자의 글**

**옹호인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 첫 아이 니콜을 주셨을 때, 그녀의 다중 장애들로 우리 삶에 왔고, 내 아내와 난 그녀를 위해 의학과 치료사, 선생님들, 사회봉사자들과 친구들과 가족까지도 옹호하였다. 예를 들면, 니콜의 어린 나이엔 심하게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 집안에선 기침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은, 옹호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 개혁교회의 장애 사무처 사역들은 장애를 갖고사는 사람들을 옹호함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든 똑같이 사역속에서 그들의 은사들을 발견 사용함으로 교회들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로 자랄수 있도록한다.

옹호는 지역이나 주나 연방정부에서도 장애를 갖고사는 사람들이 사회나 교회에서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에 도움이 없이는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들은 교통이나 직원도움이나 도구나 건강 돌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미주에선 이들이 필요한 봉사나 기구들의 자원들이 교회가 아닌 정부나 다른 단체들을 통해서 오고있다.

카나다의 장애 사무처는 “죽는것이 옳다”는 법에 반대하며 좋은 완화 의료에 돌봄을 옹호하고 있다. 미국에선,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 개혁교회 장애 사무처는 다 믿음 장애 (aapd.com/idac)ㅡ변호 협회와 연합하여 장애를 갖고사는 사람들을 위한 적당한 건강돌봄, 돌립이나 공동 삶의 도움들, 직업들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중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옹호는 기독교인으로 우리 선교의 한부분이며,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의 일부분이다. 예수님도 약속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는 당신을 도우며 영원히 함께할 다른 변호인 주실것이다-진리의 영” (요한복음 14:16, 17 NIV)

*—마크 스티븐슨*

**편지**

만성 통증에 관한 것을 읽고 나는 급히 이것을 쓴다. 난 근래에 40년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찾다가 약간의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많는 시간동안 난 죄책감, 화냄과 죽기까지도 바랬었다. 양극성 장애의 설명을 읽은 후에, 난 마지막에 정신과 의사를 추천받아 만나기로 했다. 지금는 약으로 정상적인 상태이며, 난 다른 사람이 되었다. 통증과 염려가 줄어들면서 난 내 생활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명의 자녀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지금은 세상속에서 더 정신 건강 문제들로 어려워하며 숨기는 자들을 위해 신경써야할 때이다.

—마리안 밴 톨

**온라인에 더 있음**

발간하는 뉴스레터의 부족으로, 이 장애물 헐기의 다른 글들의 정보와 편집자의 글들은 아래 온라인에서 찾을수 있음. (www.crcna.org/disability and [www.rca.org/disability](http://www.rca.org/disability)).

© 2014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미주개혁교회(RCA) 장애 사무처 사역. 장애물 헐기는 매 분기별로 CRC 장애 사무처-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그리고 RCA 장애 사무처-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에서 발행한다. 마크 스트븐슨 목사, CRC 장애 사무처 디렉터(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와 테리 디영목사, RCA 장애 사무처 코디네이터(616-541-0855; tdeyoung@rca.org) 가 이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한다. 본 내용의 복사함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허가를 허용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미주개혁교회(RCA)의 공동 장애 사역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